

32개국 겨루는 마지막대회...숫자로 보는 카타르월드컵

중동서 첫 겨울 월드컵...도하 비롯 총 8개 경기장서 개최 총 29일 동안...내달 9일 루사일 스타디움서 결승전 열려 입장권 판매량 300만장...러시아 월드컵 240만장 넘어서

21일 오전 1시(한국시간) 2022 카타르 월드컵이 화려하게 개막했다. 사상 첫 겨울 월드컵에 세계인의 이목이 카타르에 쏠렸다. 역대 월드컵과 올해 대회를 숫자를 통해 살펴본다

▲1= 카타르 월드컵은 숫자 1과 관련된 기록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중동에서 열리는 첫 월드컵이다. 또 겨울에 처음 열리는 월드컵이기도 하다. 한 낮에 섭씨 40도를 훌쩍 넘는 기온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여성 주심과 부심이 월드컵 본선에 나서는 것도 월드컵 사상 처음이다.

▲3= 줄리메컵 이후 현재의 월드컵 트로피를 가장 많이 들어 올린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은 사람 두 명이 지구 모양을 떠받드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현재의 월드컵 트로피를 세 번 차지했다. 독일은 이 트로피가 처음 수여된 1974년 독일 월드컵을 비롯해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승했다. 다만 줄리메컵과 달리 이 월드컵 트로피는 우승국에게 영구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8= 카타르 월드컵은 총 8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카타르 수도인 도하를 포함해 5개 도시에 경기장이 위치해있다. 모두 50km 모여 있어, 도하에서 차로 1시간이면 어느 경기장이든 이동할 수 있다.

▲12= 1974년 이후 우승한 12개국 이름이 월드컵 트로피에 새겨져 있다. 위치는 받침대 부분이다.

▲16= 월드컵 개인 통산 최다 골은 16골이다. 전(前) 독일 대표팀 공격수 미하엘 클로제 세 차례 월드컵에서 기록했다. 2위는 브라질의 호나우두로 월드컵에서 15골을 기록했다.

▲18= 월드컵 트로피는 18K 금으로 제작

됐다. 현재 월드컵 우승 트로피는 무게 6.17kg, 높이 36.8cm이다. 1971년 4월 국제축구연맹(FIFA)이 새로운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만들기 위해 진행된 공모에서 지금의 디자인을 한 트로피가 선정됐다. 2006년부터 진품 트로피는 공식 시상식에서만 우승팀에게 수여된다. 시상식이 끝나면 FIFA 직원들이 다시 가져간다. 대신 우승팀에게는 진품과 똑같은 복제품이 주어진다.

▲29= 카타르 월드컵은 29일간 진행된다. 결승전은 내달 9일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32= 카타르 월드컵은 총 32개국이 참가했다. 32개국이 실력을 겨루는 월드컵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는 2026년 대회부터는 본선 참가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난다.

▲53=1971년 FIFA가 개최한 새 트로피 공모전에 53개 작품이 출품됐다. FIFA는 이탈리아 출신 실비오 가자니가의 작품을 채택했다. 가자니가는 자신이 디자인한 월드컵 트로피에 대해 "세계를 구 모양으로 디자인해서 축구공과 유사하게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300= 카타르 월드컵 입장권은 판매량



300만장으로 집계됐다. 이는 카타르 인구 280만 명보다 많아 규모다.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 판매된 입장권은 240만장이었다.

▲1974= 1970년 브라질 대표팀은 멕시코 월드컵에서 역대 세 번째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며 줄리메 컵을 갖고 귀국했다. 1930년 초대 월드컵을 위해 만들어진 줄리메 컵은 3회 우승을 차지한 브라질에게 영구 수여됐다. 이후 FIFA는 1974년부터 사용될 새 트로피 공모에 나섰다. 이때 선정된 것이 현재의

월드컵 트로피다.

▲42,000,000= 이번 카타르 월드컵 우승국은 우승 상금으로만 4200만 달러(약 563억 원)를 받는다. 4년 전 러시아 대회의 3800만 달러(약 515억 원)보다 400만 달러(약 54억 원)가 늘어난 규모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액수다. FIFA가 본선 진출국 32개국에 상금과 참가 수당으로 주는 돈만 4억4000만 달러(약 5900억 원)에 달한다. 조별리그에 탈락하더라도 각 대표팀은 900만 달러(약 121억 원)를 받는다. 일조의 참가 수당인 셈이다.



이정은6이 20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클럽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최종전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최종라운드 3번 홀에서 티샷하고 있다. 이정은6은 최종 합계 12언더파 276타 공동 4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정은6, LPGA 최종전서 공동 4위...리디아 고 우승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12언더파 리디아 고, 상금왕·올해 선수상 석권

이정은6(26)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최종전에서 공동 4위에 올랐다.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가 우승했다.

이정은6은 21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에 있는 티뷰론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2언더파를 적어내 최종 합계 12언더파 276타로 경기를 마쳤다.

이정은6은 잉글랜드 출신 조지아 홀과 함께 공동 4위에 자리 잡았다.

이정은6은 전반 홀에서 버디 1개, 보기 1개를 기록했고 17번홀(파5)에서 샷이글을 낚았지만 선두와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리디아 고는 17언더파로 리오나 매과이어(아일랜드)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리디아 고는 올 시즌 LPGA 투어 상금, 올해의 선수, 평균 타수 등 주요 부문을 석권했다.

왕중왕전 격인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리디아 고는 대회 상금 200만달러(27억 원)를 포함 올 시즌 436만달러(58억7000만 원)를 획득했다. 리디아 고는 2016년 이후 6년만에 시즌 다승에 오르며 화려한 부활에 성공했다. LPGA 통산 19승.

김효주는 9언더파로 공동 7위에 올랐다.

최운정은 5언더파로 공동 17위, 양희영은 4언더파로 공동 21위, 김세영은 3언더파로 공동 25위, 고진영과 전인지, 안나린은 나란히 1언더파로 공동 33위다. 지은희는 이븐파로 공동 41위다. 김아림은 3오버파로 51위, 최혜진은 6오버파로 공동 54위다.

LG, 박동원 4년 총액 65억원에 영입

올 시즌 KIA 이적 후 123경기 출전 18홈런 57타점 "LG 우승 위해 최선"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올 시즌을 끝으로 FA 자격을 얻은 박동원(32)과 계약기간 4년, 총액 65억원(계약금 20억원, 4년 연봉 총액 45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박동원은 개성고를 졸업하고 2009년 히어로즈에 입단해 KBO리그 통산 1026경기에 출전, 타율 0.256, 114홈런 735안타 464타점을 기록한 정상급 포수이다.

이번 시즌 KIA 타이거즈로 트레이드 돼 123경기에 출전해 18홈런 57타점, 타율 0.242,

OPS 0.771(출루율 0.334/장타율 0.436)성적을 거뒀으며 수비에서도 도루저지율 40.3%를 기록하며 활약을 펼쳤다.

박동원은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LG 트윈스 구단에 감사드립니다. FA라는 큰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응원해주신 키움과 KIA 팬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제 LG 트윈스 팬분들에게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구단의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LG는 "박동원 선수가 공격력과 함께 수비력도 갖춘 포수로서 이번 시즌을 통해 본인의 가치를 잘 보여줬으며 구단이 추구하는 목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美 ESPN "손흥민 부상, 안심할 때 아냐"

부상 입은 상태 월드컵 참석 선수 명단 이름 올려 "몸 상태 지켜봐야 해"



손흥민이 훈련에 합류했지만 그의 몸 상태를 꾸준히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0일(현지 시간)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은 부상으로 인해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 10명에 관한 기사를 작성했다. 이 목록에 한국 선수는 없었다.

그러나 부상을 입은 상태로 월드컵에 참석하기 때문에 경기를 지켜봐야 하는 선수 명단에는 손흥민이 이름을 올렸다.

ESPN은 손흥민(한국)을 비롯해 ▲알폰소 데이비스(캐나다) ▲파울로 디발라(아르헨티나) ▲로멜루 루카쿠(벨기에) ▲라울 히메네스(멕시코) ▲칼빈 필립스(잉글랜드) ▲라파엘 바란(프랑스) ▲사르다르 아즈문(이란) ▲로날드 아라우호(우루과이) ▲조 엘런(웨일스) 등을 컨디션 관측해야 하는 선수로 언급했다.

손흥민은 이달 초 안와골절 부상으로 수술을 했다. 월드컵 불참 가능성까지 나왔지만 최종 명단에는 포함됐다.

손흥민은 현재 카타르에서 훈련하고 있다. 다만 출전이 언제쯤 가능할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민선, 스피드스케이팅 女500m 월드컵 2연속 금메달

김민선(의정부시청)이 다시 한번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여자 500m에서 정상에 올랐다. '포스트 이상화'로서 올 시즌 자신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김민선은 20일(한국시간) 네덜란드 헤이렌베인의 티알프 아이스 링크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2022-23 월드컵 스피드스케이팅 마지막날 여자 500m 디비전A에서 자신의 최고 기록인 37초20에 근접한 37초21의 기록으로 정상에 올랐다.

김민선은 지난 19일에 열린 여자 1000m 디비전A에서 1분15초24로 8위에 그치며 월드컵 2

회 연속 메달 사냥에 실패했지만 여자 500m 디비전A에서 다시 한번 정상에 오르며 일주일만에 월드컵 2연속 금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여자 1000m 디비전A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유타 레이르담(네덜란드)과 가장 마지막인 10조에 들어간 김민선은 8조의 바네사 헤르조그(오스트리아)의 37초48 기록을 넘어야만 했다. 물론 지난 월드컵 1차 대회에서 이 종목 은메달을 차지한 레이르담과 맞대결도 의식해야만 했다.

빠른 출발을 보인 김민선은 첫 100m를 10초43에 통과하며 10초63에 그친 레이르담은 물

론 10초51을 기록했던 헤르조그에도 앞서며 패스할 수 있었다. 김민선은 끝까지 속도를 높이며 나머지 400m를 26초7에 끊으며 37초21을 찍었다.

김민선보다 첫 100m에서 0.2초 정도 늦었던 레이르담도 나머지 400m를 26초8에 달린 것도 김민선이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며 1위로 결승선을 끊은 원동력이 됐다.

김민선은 월드컵 1, 2차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하면서 여자 500m에서 월드컵 포인트 120점으로 올 시즌 여자 500m 세계랭킹 1위 자리를 유지했다.

류현진 오늘 귀국... "팔꿈치 재활에 전념하겠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투수 류현진(35)이 오는 22일 귀국한다.

류현진의 국내 매니지먼트 회사인 쉐이머스팩코퍼레이션(대표 류현진)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류현진 선수가 올해 시즌을 정리하고 내일 귀국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마치고 재활에 전념하던 류현진은 9월 말 탈출산이라는 경사스러운 일과 함께 조금은 늦은 시즌을

정리하며 귀국길에 올랐다. 류현진은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만큼 비시즌 동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내년을 위한 재충전에 전념하겠다"는 간단한 소감을 전했다.

류현진은 올해 6경기(27이닝)에 선발 등판해 2승 무패 평균자책점 5.67의 성적을 올렸다. 부상 여파로 인한 구속 저하로 2013년 메이저 리그에 진출한 후 가장 힘든 시즌을 보냈다. 뉴스